

[창세기 45:4-8] 4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이 이집트에 판 자니이다. 5 그런즉 이제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6 또 이 땅에 이 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오 년이 남아 있어 그때에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7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8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主)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1. 요셉의 승리한 인생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 하나로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 털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하는 생활’의 본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을 얘기 할 때에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인생 역전의 얘기로서 잘못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요셉의 승리한 인생 얘기로부터 배워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그가 감옥을 벗어나서 총리가 되어서도 아니요, 이집트의 총리로서 7 년의 가뭄에서 그 나라를 잘 관리한 성공적 국가 경영자이어서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던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제 자기 앞에 곡식을 사러 온 자신의 형들 앞에 “자 보시오. 당신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이렇게 성공했지 않소?”라고 자랑하고, 빠기거나, 그들의 잘못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여 벌주고자 하는 교만한 승리자로서도 아닙니다. 요셉의 승리는 속 사람의 승리이었고, 그 승리는 그가 노예로 살았던 13 년 동안에 이미 그 안에 있었던 승리로서, 그는 노예로 있었을 때에 자신의 형들을 이미 용서한 자유로운 심령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었습니다.

요셉의 승리의 비결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잔인함과 미움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의 시점에서 올바르게 바라보고 이해하여, 그들을 마음 속에서 용서하기로 작정한 의도적인 결심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인간적으로 정당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몸은 감옥에 갇힌 노예이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운 영을 갖게 된 것입니다.

2. 요셉 형제들의 죄와 하나님의 계획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에 시기심을 품고 요셉에게 시기와 미움의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제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루우벤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요셉을 깊은 웅덩이 속에 죽게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즉, 430 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이집트에서 구출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창 12:1-3; 갈 3:17]. 어린 요셉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에 고난을 계획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창 45:5, 7] 5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7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행위는 악한 것이었지만, 요셉은 이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석함으로써 악을 악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행위로 이해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리 이집트에 보내셨을 때에 미천한 노예로 보내셨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신을 겸손히 하여, 노예의 처지를 기꺼이 수용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 안에서나,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로서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특권에 감사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신의 부르심 [Mission]을 인식하고, 이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 성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형들의 잘못이 중간에 끼어서 순종의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인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3. 용서와 승리

남이 우리에게 잘못 했을 때에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잘못된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 댓가를 받게 될 때야 마음이 풀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잘못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절대 용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사실 이런 원칙, 즉 “죄의 댓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지니신 분입니다.

[마태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모든 동기와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과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100 퍼센트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진짜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들, 즉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반대하여 들고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시 139:19-22]. 우리의 원수는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더라도 우리의 형제나, 가족이나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70 번을 7 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만 있을 것이며,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원수가 과연 누구인가 분명히 하고, 진짜 원수가 아닌 사람들의 잘못에 자비롭고 관용한 태도를 보여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승리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배워야 할 고귀한 교훈입니다.